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고은영*

- I. 서론
- II.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의 관련성
 - 1. 기본 서사단락
 - 2. 서사구조의 대립성
 - 3.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 III. 결론

국문요약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씨의 고난과 고통을 통한 극복, 새드림 말명으로 구성된다. 새드림 말명은 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지장아기씨의 삶의 모습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지장아기씨가 사후에 새로 태어난 이유를 본풀이 안에서 찾고,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곳과 연관시켜 보았다.

<지장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9편의 이본을 검토하여 7개의 서사 단락을 찾아내고 이들의 앞단락과 뒷단락이 대립하는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 기본형의 대립 구조는 여러 차례의 고통을 통하여 확장형의 대립 구조로 나아갈 수 있었다. 동일한 구조의 반복으로 인하여 현실과 신화의 세계가 융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사단법인) 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지장본풀이>의 끝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새드림 말명은 제주도굿과 연관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초감제 새드림의 기능은 제장을 정화시키는 기능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지장아기씨가 정성으로 굿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초감제 새드림에 나오는 새는 지장아기씨이다. <세경본풀이>의 서수왕딸애기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나 그것은 본초적인 새의 모습으로 지장아기씨 이전에 존재한다. 초감제 새드림의 의례와 관련지를 때 <지장본풀이>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주제어 : 지장본풀이, 지장아기씨, 새드림, 사

I. 서론

이 논문은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드림 말명 삽입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룬다. 제주도굿은 다른 지방의 굿과 다른 점이 많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행히 맥락이 갖추어진 본풀이들을 통해 신의 성격을 다소나마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다.

그러나 <지장본풀이>와 같이 서사맥락이 닿지 않는 본풀이를 만나면 사건들이 엮히는 양상과 대립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굿을 이해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비롯 몇몇 본풀이에 치우쳐져 있어 <지장본풀이>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편이다. <지장본풀이>는 길이가 짧고 다른 본풀이들과 달리 2음보로 구송되기에 서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장본풀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9개의 이본들을 검토하여 기본 서사단락을 파악하였다. 이 서사단락들은 각각 앞단락과 뒷단락이 상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새드림 말명은 앞의 내용들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제주도굿 초감제 새드림을 통하여 <지장본풀이>의 마지막 부분에 새드림 말명이 삽입된 의미를 찾자 한다. 또한 이 의미는 신화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현실세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굿을 함으로써 동일한 대립 구조가 반복되고 현실과 신화의 경계가 허물어져 현실의 세계와 신화의 세계가 융합된다.

1. 기본 서사단락

<지장본풀이>의 특징과 구조를 밝히기에 앞서 <지장본풀이> 이본들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고순안본, 이용옥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서사와 결말이 일치한다. 고순안본과 이용옥본은 후술하고 여타의 <지장본풀이>는 묶어서 이야기하되 안사인본이 서사가 충실하게 드러나 있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지장본풀이>가 수록되어 있는 목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지장본풀이> 이본 목록

	책 이름	저자	구송	채록시기	출판년도
1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진성기	서월선, 박남하	1956~1963	1991
2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안사인	1959~1967	1980
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고대중	1962	2001
4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회	이중춘	1994	2001
5	제주도 무속신화	문무병	정태진	1997	1998
6	동북정병춘택 시왕맞이	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고순안	2006	2008
7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이용옥	2008	2009
8	양창보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양창보	2010	2010
9	서순실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서순실	2014	2015

채록연도순으로 번호를 부여하였고 채록연도가 여러 해에 걸쳐진 경우에는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본들의 세부적인 차이점과 서사단락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세부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지장아기씨의 복이 구송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1.박남하본’에서는 초본과 말본이 좋고 중본이 낫다고 나와 있다. ‘3.고대중본’에는 선부는 좋아도 후부는 나쁘고 후부는 나빠도 선부는 좋다는 모순된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4.이중춘본’에서는 초년, 말년 운 모두 좋다고 나와 있다. ‘6.고순안본’에서는 초군은 좋아도 중군은 낫다고 나와 있고, ‘8.양창보본’에서는 초

복, 중복, 말복이 낫다고 나와 있다. 복에 관련된 언급이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이 언급이 전체서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본·말본이 좋다고 하여도 새로 태어나고 선부는 좋아도 후부는 나쁘다고 하여도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서수왕 딸애기에 대한 말명이 구송자에 따라 자세하게 나와 있거나 간략히 서술되기도 하고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대체로 지장아기씨가 시집을 가는 부분에서 ‘문운장’(1.서월선본), ‘문수이택’(3.고대중본), ‘문혼장’(5.정태진본), ‘서수왕 서편에’(6.고순안본), ‘문수이택’(8.양창보본), ‘서수왕 서편에서 문호장’(9.서순실본)처럼 간략히 언급되었다. ‘4.이중춘본’에서는 서수왕 딸애기나 문도령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1.박남하본’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다.

서수왕 딸애기/ 문수의 집이
 씨집을 못가난/ 문²진 방안에
 문걸영 맞아서/ 좇아서 죽는고
 자청비 호고 새움을 호는고¹⁾

서수왕 딸애기가 문도령에게 시집을 가고 싶었으나 자청비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서수왕 딸애기는 자청비를 시샘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체로 서수왕 딸애기에 대한 내용은 이중춘본을 제외하고는 간략히라도 언급되어 있다.

위의 두 가지 차이점은 세부적인 것이다. 9개 본풀이의 전체 서사를 큰틀에서 고려할 때 이야기의 맥락은 달라지지 않는다. ‘3.고대중본’과 ‘4.이중춘본’이 한두 단락을 제외하고 구송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이 7개의 단락으로 9편을 정리할 수 있었다.

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64~165쪽.

〈표2 지장본풀이 서사단락〉

	서월선, 박남하	안사인	고대중	이중춘	정태진	고순안	이용옥	양창보	서순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⑥	○	○	○		○	*○	*○	○	○
⑦	○	○			○	○	○	○	○

- ① 남산국과 여산국이 수륙을 드러 지장아기씨가 태어나고, 부모와 조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린다.
- ② 지장아기씨의 부모,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외삼촌댁의 수양딸로 가나 외삼촌댁의 구박을 받는다.
- ③ 하늘 부영새의 도움을 받으며 구박을 견디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
- ④ 지장아기씨의 시부모, 남편, 아들이 죽고 나자 시누이가 지장아기씨에게 욕을 한다.
- ⑤ 대사에게 지장아기씨 자신의 사주팔자를 묻자, 대사는 지장아기씨에게 굿하기를 권하고 정성껏 굿을 준비하여 행한다.
- ⑥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새의 몸으로 환생한다.
- ⑦ 새드림 말명의 일부분이 삽입되어 있다.

본풀이의 채록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사단락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공통된 7개의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용옥본과 고순안본은 ‘⑥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새의 몸으로 환생한다.’는 부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고순안본에서는 지장아기씨가 통부처로 환생한다고 한 뒤에 새드림말명의 일부분을 구송하고 끝이 난다. 이용옥본은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돌부처의 몸으로 환생하자 서천꽃밭에 새가 앉아서 온다’고 제시되어 있다. 고순안본과 이용옥본 역시 다른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새드림 말명이 삽입되어 있다. 초감제 새드림과 연관지어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지장본풀이> 7번째 단락의 의미는 모호해진다. 앞의 서사단락과 관련지어 인과관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장아기씨의 환생은 ‘새’가 아니라 부처가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나 지장아기씨 전체 서사단락의 구조를 고려하고 특히 마지막 새드림 말명 삽입을 생각한다면 지장아기씨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용옥본과 고순안본의 지장아기씨가 돌부처로 태어난다는 본풀이는 불교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여러 이야기들이 불교적 윤색을 거칠 때에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지장본풀이> 역시 죽어서 신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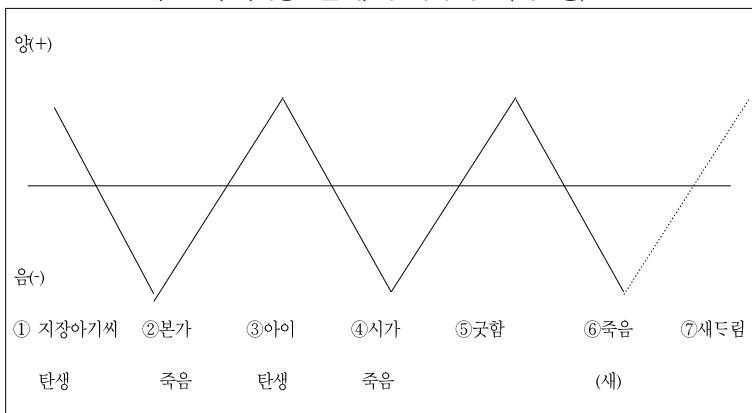
형이 영향을 입어 불교적 윤색을 거친 것이다. 다만 선후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어떤 이본이 먼저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이본들 역시 지장아기씨의 탄생이 절에 수륙을 드러 얻는 것으로 보아 불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씨가 기구한 팔자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정성껏 굿을 준비하여 굿을 벌이고 죽기 전까지 좋은 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결말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고 그 새를 쫓기 위한 새드림 말명이 삽입되어 있다. 새드림 말명을 포함한 이 7개의 서사단락은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7개의 서사단락을 가지고 <지장본풀이>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 대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2. 서사구조의 대립성

9편의 이본검토를 통해 7개의 서사단락을 정리할 수 있었다. 외면적으로 각 서사단락들은 앞의 서사단락과 상충되며 독립적으로 보인다. 이 독립적인 단락들을 구조화하면 반복되는 틀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지장본풀이 7개의 서사단락을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1〉 <지장본풀이>의 서사 구조(기본형)



각각의 단락들은 앞의 단락과 다른 세계에 있다. 남산국과 여산국이 자식이 없어 수록을 드리 지장아기씨가 태어난다.(①) 지장아기씨의 어리광을 보는 것도 잠시일 뿐, 지장아기씨의 부모와 조부모가 줄줄이 죽음을 맞이한다.(②) 다행히 옥황부영새의 도움으로 외삼촌의 구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지장아기씨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지장아기씨의 행실이 착하다고 소문이 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얻게 되는 것이다.(③) 그런 기쁨도 잠시 자신의 본가처럼 시댁식구들도 시부모, 남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맞는다.(④) 자신의 사주팔자가 어떠한지 대사에게 묻자 대사는 낫하기를 권하고, 지장아기씨는 정성껏 굿을 준비하고 굿을 한다.(⑤) 굿을 하고 본가와 시댁의 원혼들을 위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새로 탄생한다.(⑥) 끝으로 새드림 말명이 삽입되어 지장본풀이가 끝난다.(⑦) <도표1>에서 ⑦은 ①~⑥의 서사단락의 흐름과는 상이하기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①, ③, ⑤, ⑦’의 단락과 ‘②, ④, ⑥’의 단락이 명확하게 대립한다. 앞의 네 개 단락이 존재하는 세계는 양(+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생명이 탄생하고 죽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정성스런 굿판이 열린 곳이며 부정한 제장을 정화시킨 세계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개의 단락은 음(-)의 세계이다. 본가와 시가의 가족들이 모두 죽고 지장아기씨가 부정한 새로 태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둘의 세계는 명확하게 대립하며 전체 서사를 구성한다.

지장아기씨 일가족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지장아기씨의 존재 때문이다. 지장아기씨는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사기(邪氣)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사기(邪氣)는 뒤에 지장아기씨가 환생한 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장아기씨가 가지고 태어난 기운 때문에 본가와 시가는 모두 몰락하여 죽음을 맞는다. 대사의 사주팔자 풀이를 통해 지장아기씨는 자신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위로하는 굿을 정성껏 준비하여 행한다. 이후에도 지장아기씨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사기(邪氣)를 모두 털어내기 위해 좋은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나서 새로 환생하는데 이 새는 앞의 죽음을 일으키는 새와는 다른 성격의 새이다. 즉 ‘⑤굿함’ 단락을 중심으로 앞의 새와 뒤의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굿을 통하여 지장아기씨의 사기(邪氣)는 사라진다.

먼저 지장아기씨가 가지고 태어난 사기(邪氣)는 바로 『제주도무속자료 사전』(현용준)의 초감제 새드림에서 서수왕 딸애기가 새 몸으로 화(化)하였다고 한 새이다. ‘사(邪)’와 새(鳥)가 혼동되어 쓰이는 이유는 음상의 유사성과 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새는 날갯짓을 하며 지상과 하늘을 자유로이 오가며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존재이다. 민속에서는 새가 아니라 제웅에 의탁하여 그것을 버림으로써 액을 막는다. 제웅치기 혹은 추령(芻靈)으로 불리는 풍속으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길에 지푸라기 인형을 버려 액을 막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연행된다.²⁾ 여기에 쓰이는 인형은 액운을 품은 존재로 의미화된다. 액운을 막기 위해서는 인형을 만들고 액을 버리듯이 이 인형을 버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연행한다.³⁾ 사악한 기운이 제웅에게로 전이되어 그 제웅을 버림으로써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 삶 역시 버려짐으로써 정화되는 부분이 동일하다. 지장아기씨가 가지고 태어난 사기(邪氣)를 굿을 통해 버림으로써 지장아기씨가 액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지장아기씨가 가지고 태어난 사기(邪氣)는 아래에 제시된 서수왕 딸애기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새드림에서 서수왕 딸애기가 새의 시초라고 채록된 부분을 확인해 보자. 지장아기씨의 새의 의미와 구별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요새야 본초(本初)가 어디야 본초가.
 옛날은 옛적에 하늘은 옥황에
 문왕성 문도령 지알(地下)에 즈청비
 문도령안티나 암창개 들었저.
 서수왕 딸애기 문수의 택(宅)으로
 씨녁을 못가난 이열에 바쳐서
 막핀지 술아나 몰타서 먹고서

2) 전경옥,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 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2006, 457쪽. “이상과 같이, 제웅치기의 민속활동은 개인의 액을 쫓아버린다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마다 약간씩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3) 허용호, 「조선시대 제의적 연행 인형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 351쪽. “제웅치기에서 인형에 대한 연행 주체들의 연행은 인형을 버리고 그 버린 인형을 다시 주위 몸체를 파헤치고 내동댕이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문 갓인 방안에 물멧지 전대(戰帶)로
 목 졸라 죽더라.
 석돌은 열흘은 문 올라 보요난
 새 몸에 가더고.⁴⁾

초감제 새드림에 등장하는 새의 본초가 제시되어 있다. 서수왕 딸애기는 자청비 때문에 문도령에게 시집을 가지 못한다. 이에 서수왕 딸애기는 화를 참지 못해 명주로 목을 매어 죽고 나서 새의 몸으로 화생(化生)하였다. 서수왕 딸애기와 문도령은 막편지까지 주고받은 사이이다. 막편지라 함은 예장(禮狀)으로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이다. 서수왕 딸애기와 문도령은 결혼하기로 집안끼리 이미 약속한 사이인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문도령을 가로챈 것이 자청비이다. 자청비의 입장에서는 여자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남편을 선택하였기에 여성의 자율성 혹은 자유연애의 상징적 여성으로 칭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수왕딸애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숨을 내던질 만큼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요즘 사회에서도 파혼을 하면 파혼한 이들과 혼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옛날이라고 가정하면 서수왕딸애기의 마음은 상처와 참담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수왕딸애기가 정한 결정은 자살이었다. 서수왕딸애기가 죽고 나서 석 달, 열흘 뒤에 발견된 것이 그녀의 몸에서 화(化)한 새이다. 자청비에 대한 새움과 문도령에 대한 원망,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분노로 탄생한 새(鳥)라면 그 기운이 사(邪)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서수왕딸애기는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새의 본초로 태어난다.

새의 본초가 되는 서수왕딸애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새의 탄생이 바로 지장아기씨이다. 지장아기씨가 탄생할 때는 새의 본초로 인해 사기(邪氣)가 가득한 채로 태어나 주변 가족들의 죽음을 몰고 온다. 지장아기씨가 자신 때문임을 인지하고 죽은 이들을 위한 굿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로써 새의 본초였던 사기(邪氣)를 훌어버리고 새로운 개념의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장아기씨도 서수왕 딸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57쪽.

애기와 마찬가지로 죽고 나서 새몸으로 환생하나 서수왕딸애기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기에 똑같은 새라 할 수 없고 정화가능한 새라 할 수 있다. 지장아기씨가 기구한 팔자를 지니고 태어났으나 지장아기씨는 그것을 극복한 것이다. 서수왕딸애기와 지장아기씨의 새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3〉 인물을 통해 살피본 새의 의미와 관계

	세경본풀이	지장본풀이
인물	서수왕딸애기	지장아기씨
곳	행하지 않음	행함
새의 의미	근원적 '새'의 탄생	새로운 의미의 '새'의 탄생
관계	선(先)	후(後)

새드림에서 새의 본초는 서수왕 딸애기라고 하였다. 이는 지장아기씨가 새의 본초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장아기씨가 죽고 나서 새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새의 탄생을 이야기해 준다. 지장아기씨는 서수왕 딸애기가 만든 강력한 새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새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구할 방법인 곳을 정성껏 마련하여 지장아기씨 본인이 그 새로운 새로 탄생한다.

서수왕딸애기가 만든 새와 지장아기씨의 새로운 새는 구별된다. 서수왕딸애기가 만든 새는 강력한 새로 모든 사물에 존재하며 자손들에게 열두 재화(災禍)를 불러 주는 새이다. 이 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지장아기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장아기씨가 이 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알아내지 못하였으나 대신 좇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지장아기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해 모두 죽어 버리자 그들을 위해 정성껏 곳을 준비하고 선행을 베풀다 죽었다. 지장아기씨가 가지고 태어난 새는 이로써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가 탄생한다. 이 새는 이전의 서수왕딸애기가 근원적으로 만든 새이긴 하나 지장아기씨가 해법을 알아내어 좇아버릴 수 있는 새이다. 이로써 새드림을 통해 제장을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지장본풀이>에 삽입되어 있는 '⑦새드림'말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3. 새드림 말명 삽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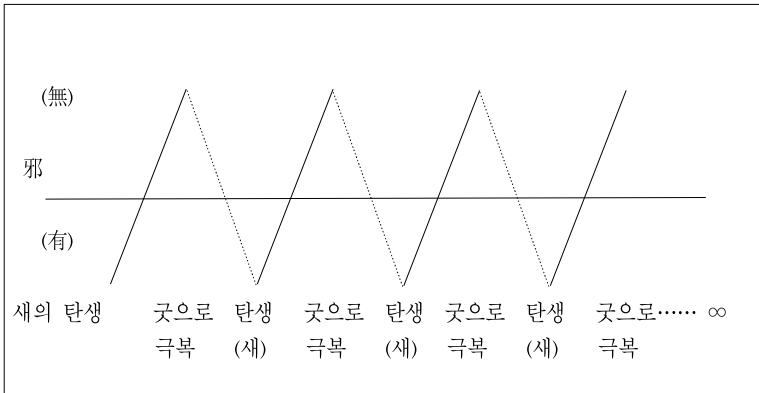
<지장본풀이>는 초감제 새드림에서 불리워지는 ‘새’의 내력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풀이이다. 새드림은 신들이 오시는 길의 문을 열고 사악한 것을 쫓아내어 제장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행한다. ‘드리다’는 제주 지역어로 ‘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국은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

<지장본풀이>에 보이는 새드림 말명 삽입은 <지장본풀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주며 <지장본풀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지장본풀이>는 다른 본풀이와 제의적 성격이 다르다. 신의 내력담을 담아 신나라하기 위한 신을 놀리는 본풀이가 아니라 의례 기원을 담고 있는 본풀이이다. 새드림이 생기게 된 내력과 곳을 벌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지장본풀이>에 드러난다. 여타의 본풀이와 다른 이와 같은 특징으로 <지장본풀이>의 이해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지장본풀이>의 후반부에 들어 있다.

<지장본풀이>의 후반부인 ‘⑥지장아기씨가 죽어 새로 태어나는 단락’과 ‘⑦새드림’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둘이 연관되어 있고 같은 구조가 곳을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장본풀이> 서사구조의 틀로 ‘⑦새드림’ 부분을 이해한다면 새드림은 새를 쫓기 위한 의례인 곳을 행하는 과정이므로 곳을 하고 나서 다시 새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2쪽. “새드림은 신궁(神宮)의 문을 열었으니 신들이 오시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내어 깨끗이 해야 한다. <새드림>이란 <사(邪) 쫓음>이란 뜻의 말인데, 심방의 노래는 <사(邪)>가 <새>로 와전되어 여러 가지 조류(鳥類)를 쫓는 내용으로 부르고 있다.”

〈도표2〉 〈지장본풀이〉의 후반부 확장 구조



〈도표2〉의 처음 부분인 새의 탄생은 <지장본풀이>의 ‘⑥지장아기씨가 죽어 새로 탄생함’ 부분이고, 곳으로 극복하는 부분은 바로 ‘⑦새 드림’의 부분이다. 새를 쫓으면 그 새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선가 탄생하고 그 새를 다시 쫓는 곳을 행한다. 이 과정의 반복은 바로 삶의 과정이다. 모든 사물이 탄생하는 곳마다 새가 따라붙기 마련이고 이 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곳을 해야 한다. 지장본풀이의 의미 중 하나가 곳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물의 탄생마다 따라붙은 새를 <지장본풀이>를 구연함으로써 풀어내지는 것이다.

전주희 역시 지장이라는 말이 제장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⁶⁾ 지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곳 자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마치 지장아기씨가 죽은 가족들을 위하여 전세남곳을 올리려고 제물과 기구를 손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처럼, 본주도 신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곳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지장본풀이>와 새드림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을 근거로 새드림과 <지장본풀이>의 제의 순서를 알아보고 둘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큰곳은 다음과 같이

6)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31, 2015, 202쪽. “지장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곳의 상황 자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구성되는데 새드림과 <지장본풀이>가 구송되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표4〉 큰굿의 제차명⁷⁾

		새드림	지장본풀이
1	초감계	○	
2	초신맞이	○	
3	초상계		
4	추물공연		
5	석살림		
6	보세감상		
7	관세우		
8	불도맞이	○	
9	일월맞이	○	
10	초공본풀이		
11	초공맞이	○	
12	이공본풀이		
13	이공맞이	○	
14	삼공본풀이		
15	젯상계		
16	시왕맞이	○	○
17	세경본풀이		
18	요왕맞이		
19	제오상계		
20	삼공맞이		
21	양궁숙임		○
22	세경놀이		
23	문전본풀이		
24	본향드리	○	
25	각도비념		
26	영계 돌려세움		
27	군웅만판		
28	물놀이		
29	도진		
30	가수리		
31	뒤맞이		

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5~6쪽.

큰굿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초감제를 행한다. 이때 새드림이 들어간다. 초신맛이, 불도맛이, 일월맛이, 초공맛이, 이공맛이, 시왕맛이 등 맞이굿을 할 때마다 초감제를 다시 행하는데 이때 새드림이 반드시 포함된다. 초감제는 나름 정형화되어 있어 굿 이해를 할 때에 길잡이가 된다. 『제주굿이해의 길잡이』(강정식)에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다른 초감제의 경우를 아울러 이야기하며 규준을 잡고 있기에 이 책을 참고로 하고자 한다. 초감제의 하위제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초감제

제청설립-말미-베포도업침-공선가선-날과국섬김-연유담음-신도업-군문열림-새드림-셋드리 앓혀 살려움-팔만금세진침-정대우-즈손역가·소지원정-산받아분부 사림-제차넘김⁸⁾

초감제는 굿을 시작할 때 굿청으로 모든 신을 청해 모시는 의미가 있다.⁹⁾ 제청을 설립하고 굿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한 뒤 신들의 도업을 나열한다. 굿이 언제 어디서 행한다는 사실을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가며 날과국을 섬기고 이 굿을 하게 된 연유를 고하게 된다. 그리고 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군문을 여는데 부정한 것이 들까 염려하여 부정한 기운을 멀리 쫓기 위해 새드림을 행한다. 이 새드림이 끝나야 신의 위계대로 신들을 좌정하여 앓히고 신들이 나갈 수 없도록 팔만금세진침을 치고 신을 오리정까지 나가 맞아들인다. 자손들이 역가를 바치고 자신의 원을 담아 소지를 사른다. 신들이 그 뜻을 알았는지 판별한 뒤 다음 제차로 넘어가게 된다. 새드림은 신들이 오기에 앞서 제장의 부정을 쫓는 기능을 한다. 이 초감제 새드림 말명의 일부가 <지장본풀이>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지장본풀이>는 시왕맛이와 양궁숙임 제차에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들 제차를 검토함으로써 <지장본풀이>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8)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47쪽.

9) 강정식, 앞의 책, 46쪽.

시왕맞이

초감제·방광침·차사본풀이·시왕도올림·석살림·액맥이·나까도전침·**지장본풀이**·질침·메어듬¹⁰⁾

양궁속임

양궁속임·**지장본풀이**·삼천군벙지사빔¹¹⁾

시왕맞이에서 초감제를 마치고 영혼이 저승문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 달라고 비는 방광침을 마치면 차사본풀이를 푼다. 차사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시왕맞이에서 본을 푸는 것이다. 옥황상제 열시왕이 도올라 하전하도록 하고 이 제차를 마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석살림을 행한다.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를 행하고 떡을 권한다. 그리고 지장본을 풀고 나서 질을 치고 메어든다. <지장본풀이>의 위치가 시왕맞이에서 나까도전침 뒤, 즉 떡을 권하는 역가바침의 성격이 <지장본풀이>에 있음을 제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궁속임의 제차는 비교적 간단한데 먼저 삼천전제석궁을 숙이고나서 지장본풀이를 푼다. 지장본풀이를 다 풀고 나서 삼천군벙에 대한 지사빔을 행한다. 여기서 역시 <지장본풀이>의 제차 위치로 지장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제차의 위치로 보았을 때, 지장신의 위치는 삼천전제석궁과 시왕궁을 숙이고 난 뒤이고 삼천군벙 앞이다. 양궁에 속하는 상위신은 아니나 군벙보다는 상위신임을 알 수 있다.

새드림과 지장본풀이는 큰굿을 진행하는 순서로만 본다면 상반된다. <지장본풀이>가 송신의 과정에서 불리는 것과 청신의 과정에서 불리는 새드림이 짝을 이룬다. 각각 독립되어 있고 구연되는 거리가 멀어 보이나 이는 <지장본풀이>의 구연 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현실과 신화의 세계를 만나게 해준다.

<지장본풀이>는 후반부에 구연이 되는데 역가바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장아기씨가 굿을 정성껏 마련하였고 이렇기에 제장의 모든 부정을 제거할 때 지장아기씨가 들인 정성처럼 이 굿을 행하겠다는 뜻

10) 강정식, 앞의 책, 185~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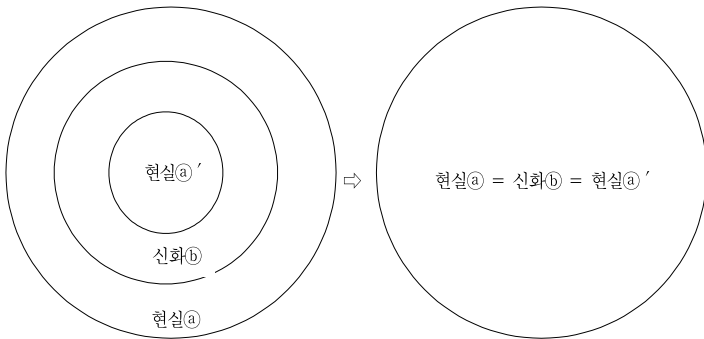
11) 강정식, 앞의 책, 238쪽.

이다. <지장본풀이>의 새드림 말명은 <지장본풀이>의 구연임과 동시에 새드림 제차처럼 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한다. 이 새드림의 새는 서수왕딸애기의 새움이 가득한 새가 아니라 바로 지장아기씨가 마련한 정화가능한 새이기에 이 새를 쫓아낼 수 있게 된다. 초감제 새드림의 새에는 이미 지장아기씨의 삶이 집약되어 있다. 서수왕딸애기의 새움과 같은 사기(邪氣)를 가지고 지장아기씨가 태어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를 극복하여 정화가능한 새로 태어난 뒤, 제장에서 새를 쫓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지장아기씨가 정성껏 굿을 행한 뒤에 지장아기씨 자신이 새로 화하여 태어난 새이기에 그 정성으로 ‘새’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지장본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현실과 본풀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린다. 굿은 신앙민들에게 제장이라는 현실 속에 신의 세계를 열어준다. <초공본풀이>와 <초공맞이>가 ‘초공질치기’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본풀이를 풀면서 굿을 하는 것과 본풀이를 행위로 하면서 굿을 하는 것이 질치기에서 대응한다. 본풀이를 풀고 본풀이 내용을 질치기의 상징적 행위로 연출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찬양과 신성성에 담보한 상징적 행위와 신의 강림 과정을 보여 주어 신의 구체적 현시를 보여준다.¹²⁾ ‘초공질치기’에서 길을 치우고 닦으며 만들어가는 과정은 현실의 제장이자 신화 속 제장이다. 굿판에서 현실과 신화 속 세계가 합치되어 현실과 신화의 경계는 무너진다. <지장본풀이> 역시 동일한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의 도표를 제시한다.

12) 김현선 외, 김현선, 「제주도 큰굿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87쪽. “본풀이를 풀면서 굿을 하는 것과 본풀이를 행위로 하면서 굿을 하는 것이 질치기에서 대응한다.”, “특정한 대목을 질치기의 상징적 행위로 연출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찬양과 신성성에 담보한 상징적 행위와 신의 강림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신이 오시는 길의 질치기와 함께 신의 구체적 현시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과정이라고 하겠다.”

〈도표3〉 <지장본풀이> 구연 전과 구연 후의 현실과 신화의 관계



<지장본풀이>를 구연하고 있는 상황을 현실(a)로 설정하자. 현실(a) 속에서 지장본풀이가 구연되면서 신화 속 세계가 펼쳐진다. 이를 간략히 신화(b)라고 하자. 문제는 <지장본풀이>가 구연되는 신화 속에 새드림 말명이 삽입되어 있다. 이 새드림을 구송하게 되면 이는 <지장본풀이>를 푸는 것과 동시에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부정한 새를 쫓는 새드림의 기능을 행한다. 이를 현실(a\')라고 하자. 현실(a) 속에서 신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이 신화 속에서 다시 새드림을 통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a\')는 <지장본풀이>라는 신화 속 세계이자 동시에 지금 여기 제장의 사기(邪氣)를 털어내어 정화시키는 새드림의 현실(a)로 다시 치환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해 현실과 신화라는 경계가 무너진다. 현실(a)는 현실(a\')와 동일시되고 신화(b)는 현실과 현실 속에서 융합된다. 결국 현실이 신화의 세계로, 신화의 세계가 현실로 동일시된다. 현실과 신화가 <지장본풀이>의 구연을 통해 하나로 합치된다. 결국 현실과 신화의 경계는 무너져 현실의 제장이 신화 속 세계가 되고, 신의 세계가 현실의 제장이 되어 버린다.

Ⅲ. 결론

제주도 굿은 살아있어 현장에서 연행될 때마다 의미가 꿈틀대며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제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한 덩어리로 이 곳을 이해하여야 하나, 이런 통찰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곳의 일부분을 쪼개어 살펴보는 것은 곳의 전체적 의미를 훼손하여 이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기에 조심스럽다.

다행히 의례와 본풀이가 결합되어 있는 접점을 의례기원신화라 일컫는 <지장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어 이 논의가 가능하였다. 초감제 새드림과 함께 이해할 때 지장아기씨의 삶이 이해가 되고, 새드림 말명이 삽입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장본풀이>의 대립적 구조를 의례 속에서 이해할 때, 새드림 말명이 삽입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으나 새드림의 ‘드리다’가 예전 제주지역에서는 ‘데리다(率)’의 의미로 쓰인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드림 말명에서도 물을 마시고 싶은 새에게는 물을 주고 쌀을 원하는 새에게는 쌀을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객환대(異客歡待)의 정신으로 새를 잘 대접하여 보낸다는 의미까지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상반된 개념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건너오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곳이 바로 제장(祭場)이다. <지장본풀이>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다른 본풀이, 제차들과 연관하여 살아있는 그 실체에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정병춘대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 김현선 외,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민속원, 2013.
- 전경옥, 「처용무의 성립과 각 지방의 관련 민속 연희 및 민속」, 『한국민속학』 44, 한국민속학회, 2006.
-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31, 한국무속학회, 2015.
-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제주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각,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허용호, 「조선시대 제의적 연행 인형 연구」,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Abstract

〈Jijangbonpuri〉's narrativ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insertion 'Saedorim' Malmyeong

Koh, Eun-Yeong*

First of all, we need to examine thoroughly other 9 pieces of Bonpuri for understanding <Jijangbonpuri>. They have a little of difference and they have generally 7 episodes. To clarify apparently the structure of <Jijangbonpuri>. Epic of <Jijangbonpuri> is not read in the causal relationship. The being of Jijangagissi was effect of her family's death. After their death she was preparing Gut that appease the ghosts. Jijangagissi died and then she was born a bird again. This is not to be read with a simple, to be understood with a relation continually repeated the opposite structure that has been inserted into the last part the basis. We should check these antagonistic relationship.

The insertion 'Saedorim' is not a coincidence but a necessity. 'Sae'(It means both a bird and a sinister spirit) is helpful to clarify the ceremonial function of <Jijangbonpuri>. Also we find out of the relevance of the Saedorim. As <Jijangbonpuri> is a myth the origin of rite, it is included chasing Sae, preparing Gut, the song of Saedorim. When Simbang sings Saedorim the last of a myth, they are collapsed boundaries of reality and myth. Saedorim is coincided the myth and the reality.

* Researcher, Institute of Cheju Studies.

* Key words : Jijangbonpuri, Jijangagissi, Saedorim, Sae

교신 : 고은영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 7길 1
(사단법인)제주학연구소
(E-mail : silver-black@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8. 31.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